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 연구 과제책임자 윤덕경 연구위원 (Tel: 02-3156-7102 / e-mail: dkyoon@kwdimail.re.kr)

청소년 성매매의 완전한 비범죄화를 위한 법제정비 및 제도개선방안

요약

- 본 연구는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삭제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 배경 및 문제점

- 이 연구는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를 분석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함)상 아동·청소년 대상의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행위 등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와는 다른 취급을 하고 있음
- 국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을 처벌하지는 않지만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는 입장임.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소년법」상의 처분이라고 하지만 보호처분은 실제로 처벌로 인식되어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성매수자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고, 성매수자들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
- 법적으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성범죄를 범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에 이용되기 때문에(청소년성보호법 제40조, 제44조)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라는 것이 명백함. 법이 대상 아동·청소년을 가해자로 보는 시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취지와 맞는 것인지 의문임
-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의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행법·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완전한 피해자성 획득 근거,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검토 등과 관련하여 국내 법 운영상황과 외국의 법·정책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2. 조사 및 결과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 성매매관련 정책과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 대상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행위자로 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을 부과함을 명시하고 있음.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마련된 보호처분은 범죄행위를 전제로 마련된 장치임
- 현행 대상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대상’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해나 성매매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파괴되는 피해자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고,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 성매매 '대상'과 '피해' 아동·청소년 정책

-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함에 있어 그 원칙과 기준을 아동·청소년에게 두지 않고 범죄자에게 두고 있는 전체 법체계의 문제점이 표면상 나타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의 필요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임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엄연한 형사제재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범죄 척결'의 관점에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시혜적 조치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 성매매범죄 척결의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성인을 대상으로 펼쳐야 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최우선순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의 피해자성

-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은 '아동·청소년 중심의 성보호'로 방향성을 새로 정립해야 하는 시점임

📍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현황과 문제점

- 보호처분 등의 인원수가 적고 검찰, 경찰에 의한 교육명령 부과의 분류기준이 모호함
 -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하는 이유는 보호관찰 또는 보호관찰과 교육, 상담의 병과를 통해 보호와 재활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실제 활용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실제 교육과정에서 교육대상이 혼합되어 진행되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한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40시간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 법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은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되어 수감명령을 받거나 법원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결정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교육과정을 부과하거나 경찰에서 발견되어 통보된 성매매청소년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실무상으로는 위기센터에 의해 연계된 성매매청소년도 이 교육과정에 합류하고 있음
- 경찰의 여성가족부 통보에 의한 교육과정 참여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음
 - 경찰에서 여성가족부로 통보하는 인원은 2014년 117명, 2015년 142명, 2016년 223명인데 비해 교육수료 인원은 2014년 25명, 2015년 30명, 2016년 57명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임

〈표〉 2016년도 치료·재활교육 대상자별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의무교육			비의무교육					
		소계	법원	검찰	소계	경찰	위기센터	상담소	쉼터	학교
통보인원	551	28	9	19	523	235	104	29	100	55
참여인원	385	28	9	19	357	69	104	29	100	55
수료인원	377	28	9	19	349	67	99	29	100	54

* 검찰·경찰의 경우 당해연도 통보인원 외에 전년도 통보인원도 포함

자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16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17.8., p.187.

▶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지원체계 현황과 문제점

-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은 별도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성매매피해자와 청소년 관련 지원체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지원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실효성 미흡
-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 부족
 - 지역분포의 불균형, 생활시설 위주, 발굴-초기개입-상담-보호-자립 등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부재
- 대상 아동·청소년과 피해아동·청소년 구분으로 인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체계에 대한 접근성 제약

▶ 소결

-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처분
 - 법원에 의한 보호처분이나 검찰의 교육과정 이수명령, 경찰에서의 여성가족부로의 통보제도의 건수가 적거나 통보를 받았음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된 배경에는 대상 아동·청소년이라는 가해자성과 피해자성을 동시에 갖는 모호한 제도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법적 근거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보호지원 체계
 -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은 별도의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성매매피해자와 청소년 관련 지원체계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아동·청소년과 대상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지원기관을 명시하고 있음
 - 법적으로 기존 체계를 활용하여 보호지원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이들 보호지원체계를 통해 실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로 한 서비스가 충분히,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의 정책적 관심이 뒤따르고 있지 않음
 -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피해자 및 청소년이라는 교차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각각의 전달체계가 나름의 고유한 지원 대상이 있고 그에 수반되는 전문성(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며 인력과 예산 등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2016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거점 성매매피해청소년 상담소 및 자활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인력과 사업 기반 하에서 진행되는 시범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계에서 포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공개나 공유,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된 적극적인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청소년기와 성매매피해경험이 복합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상황에 대응하며 탈성매매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외국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관련 법·정책사례 분석

▶ 미국

- 1994년 개정된 연방 형사소송법 제3509조 제a(6)항에 의하면 ‘착취’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의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개념임. 또 미국 연방형법은 12세 미만의 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한 성적 학대 행위로 처벌하고 있음(U.S.C Title 18 제2241조 제c항)

- 일정한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형사면책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 되었고, 2017년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 D.C.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 캐나다

- 캐나다의 경우 16세 미만의 자에 의한 성매매는 무조건적인 성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기보다는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일체의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매매의 문제가 아니라 의제강간죄의 문제로 보고 있음
- 캐나다 형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연령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에 있다고 간주함

▶ 영국

- 중범죄법(2003)을 통해서 아동성매매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5년 중범죄법 개정을 통해서 아동성착취로 규정함
- 영국은 아동성착취 관점을 일선까지 관철시키기 위해 정책페이퍼를 발행함

▶ 스웨덴

- 스웨덴은 만15세 미만자와는 그 어떤 성적 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됨. 만15세 이상 18세 미만자와 보호의무 있는 자에 의한 성적행위도 처벌하고 있음
- 스웨덴 성매매관련 정책의 특징은 성관계의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나 성구매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스웨덴에는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 자체가 없음

▶ 소결

- 영국의 경우 가출과 성매매 이면에는 성착취가 있었음이 드러나 이를 국가정책에 전면 반영하게 됨
- ‘성착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형사면책규정을 마련함
-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이 없는 외국 입법례도 있었으며,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현황 파악과 일선 실무자 인식변화 교육,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 보호프로그램 및 성착취에 해당하는 유해한 성적 행위 판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이 이루어 짐
- 의제강간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은 성착취 피해자로 인정
- 정책적 시사점
 - 미국법에서는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일정한 연령 이하의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하여 형사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아동·청소년을 일반 비행청소년이나 성인 성매매여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온전한 범죄피해자로 간주하고 있음

3. 정책제언

📍 제안1) 아동·청소년의 성매도행위 비범죄화

▶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 삭제

- 현행 법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과 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성매매결정권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임
- 대상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여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아동·청소년 성착취로 바라보는 관점과 일맥상통함
- 아동·청소년의 성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은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호해야 함
-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인 형사제재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형사제재의 책임을 완전하게 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해서 완전한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상되는 반론

- 성매매 비범죄화로의 오해
 -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면책이 이루어져 비범죄화 되더라도, 성매매행위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처벌받는 범죄유형으로 분명히 존재함
- 성매매아동·청소년의 증가우려
 -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라는 현장으로 이끄는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야 하며, 성매매아동·청소년 증가에 대한 책임은 구매하는 자의 책임으로 다루어야 할 것임

📍 제안2) 대안 : 피해아동·청소년 정책

▶ 피해자성 강화의 필요성

- 실제로 대상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정폭력 내지 성폭력을 포함한 학대 경험, 가정의 정상적인 보호 내지 양육을 받지 못하고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궁핍 상황으로 경제적·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반면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성인은 연령, 지적 능력, 경제적 능력, 정보력 등의 모든 방면에서 아동·청소년 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들의 취약한 상황을 너무나도 쉽게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
-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구매행위의 근절과 탈성매매와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한 책임 면제로 비범죄화하고 보호·지원체계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39조(소년부송치), 제40조(대상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를 삭제하고 성매매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동 법 제2조의 '대상 아동·청소년'의 용어정의부분도 함께 삭제되어야 할 것이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통합지원 체계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함
-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유인되는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플 개발자, 운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어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변화되고 있는 사이버 성매매 환경을 규제할 수 있는 관련 법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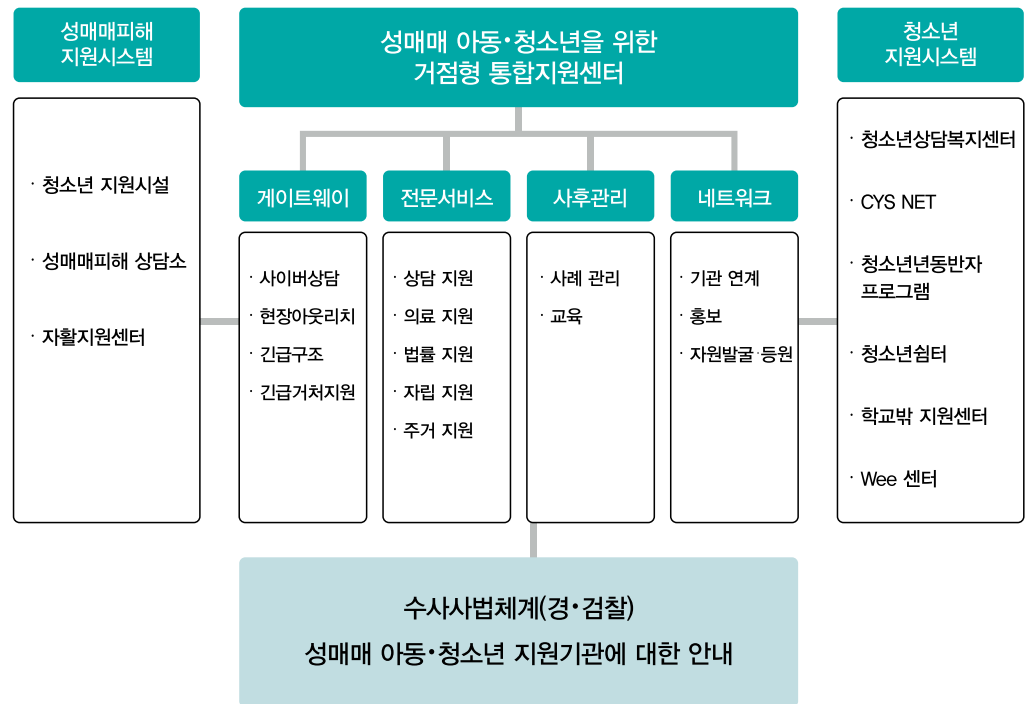
▶ 구체적인 강화 방안

- 통합지원체계로의 자율적인 교육 이수제도 도입
- 수사기관의 설명의무 부과
- 사법경찰관의 여성가족부 통지시 조력자의 조력 의무화

📍 제안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설치 및 운영방향

▶ 거점형 통합지원체계 설치 및 운영

-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상황에 대응하며 탈성매매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한 별도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의 적극적 검토가 필요함
-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한 체계는 초기발굴-구조 등 게이트웨이(gateway)의 역할, 상담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학업, 취업 등 자립지원-주거지원 등 서비스 제공 역할, 교육-사례관리 등의 사후관리 역할, 네트워크와 홍보, 모니터링 등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게이트웨이(gateway)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전방위적인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발굴 및 상담,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함
- 이때는 전문적인 상담원 뿐 아니라 성매매 아동·청소년 동료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긴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보호기능(드랍인센터) 수행이 필요함
- 이후에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상황과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성매매로 재유입하지 않도록 교육과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또한 관련된 여러 기관들이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으로 사례 발굴, 서비스 연계나 자원 동원 등을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심각성과 유해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등의 역할도 수행해야 함
- 이러한 기능 수행을 위한 관련법에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청소년성보호법에 별도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통합지원기관으로 전환하는 방법 혹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별도 설치 규정을 신설하거나 성매매피해상담소 중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실적 등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음
- 법적 근거 뿐 아니라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 사업의 양과 질은 사업기반과 직결되므로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사업내용, 양과 질, 운영방식 등과 같이 사업 운영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함
- 그리고 이들 기관은 유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사례 발굴 및 자원 연계/동원을 병행하므로 광역자치단체 혹은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설치, 해당 권역을 담당하도록 함



〈그림〉 거점형 통합지원체계(안)

▶ 성매매 아동 ·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 협력 강화

-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을 전담하는 거점형 통합지원체계를 설치하게 되면, 기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현재 성매매아동 ·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성폭력전담의료기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 보호 · 재활센터 등은, 각 기관의 고유한 기능과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을 발굴할 경우 거점형 통합지원체계로 연계하도록 해야 하고, 반대로 거점형 통합지원체계로부터 연계된 사례에 대해, 각 기관에서 축적하고 있는 전문적인 서비스나 자원을 연계하거나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이들 기관의 성매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함. 종사자의 교육훈련 강화,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여 성매매 아동 · 청소년 실천사례를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발표 및 학습함으로써 실천 노하우를 공유해야 함. 성매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자료를 생산해야 함. 이는 현황 파악과 동시에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 이외에도 보다 다양한 지원체계들과 연계, 협력함으로써 성매매 아동 · 청소년을 위한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이들 역시 성매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지원 역량을 습득하도록 교육훈련,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실천사례에 대한 공유와 학습을 위한 워크숍 운영 등의 실시가 필요할 것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에 20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 밖에 있을 성매매 아동 ·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다양한 자원을 통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정서적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 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등 중·고 위험군인 청소년을 우선하여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 복합적인 문제 해결 등 장기적인 사례관리가 가능하여, 성매매피해경험에 따른 장기간의 치유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유용할 수 있음

- 재학 중인 상황에서도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어 wee센터와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성매매피해지원체계 안에서는 자활지원센터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성매매 아동·청소년들도 자립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에 성매매 아동·청소년만의 자활지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4. 기대효과

- 📍 아동·청소년의 성매도행위 비범죄화를 위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완전한 피해자성 획득 근거 제공
- 📍 「형법」상 의제강간죄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 및 입법방안 제공
-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설치 및 연계·협력 강화 방안 제시

참고자료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진호(2016),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 강정은(2015), “대상 아동·청소년 규정의 위헌성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청소년 성매매문제, 같이 얘기 좀 해 봅시다!, 십대여성인권센터, 2015. 10.
- 강지명(2013), “성매매 아동·청소년 처우의 현황과 개선방안”, 교정담론 제7권 제2호, 아시아교정포럼, 2013. 12.
-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7), 「2016 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17.8., pp.184-190.
- 김고연주(2016),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모델(가),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워크숍 자료(2016.7.21.), 미간행.
- 김선옥(2015), 성매매 피해청소년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문1. 청소년 날 다시 일으키다 세미나 자료집, pp.41-46.
- 김인숙(201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자립 지원 방향. 여성과 인권, pp.55-58.
- 변정애(2017),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성과와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포럼 발표자료, 미간행.
- 이유진·윤옥경·조윤오(201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12.

이현숙(2015), 성매매 피해청소년실태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토론회3. 청소년 날 다시 일으키다 세미나 자료집, pp.55-58.

이현숙(2017), “성매매(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하여”, 성매매 유입 아동 · 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국회 아동 · 여성 · 인권정책포럼, 2017. 7. pp.7-27.

정현미(2016), “아동 ·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개요”, 아동 · 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조주은(2017),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를 둘러싼 쟁점분석. 성매매유입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pp.31-50.

조진경(2016), “아동 · 청소년 성매매 환경과 인권상황 실태”, 아동 · 청소년 성매매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6. 11.

조진경(2017),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의 쟁점 및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포럼 발표자료, 미간행.

조진경 외(2017), 해외의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 · 지원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천정아(2015),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의제강간죄 연령기준 상향”,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연령 상향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 2015. 12.

최석림 · 이재일(2010), “교사와 학생 사이 성보호문제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161호, 국회입법조사처, 2010. 12.

하지선 · 김정연(2016),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 사례관리 컨설팅 보고서,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congress.gov/bill/112th-congress/senate-bill/596>.

https://www.avert.org/sex-stis/age-of-consent#footnote1_rubrid(최종검색일: 2017. 10. 25)

<http://criminal.findlaw.com/criminal-charges/statutory-rape.html?version=2>(최종검색일: 2017. 10. 25)

https://www.unicef.org/rightsite/433_457.htm#to_have_sex(최종검색일: 2017. 10. 25)